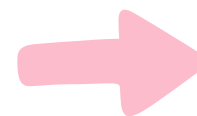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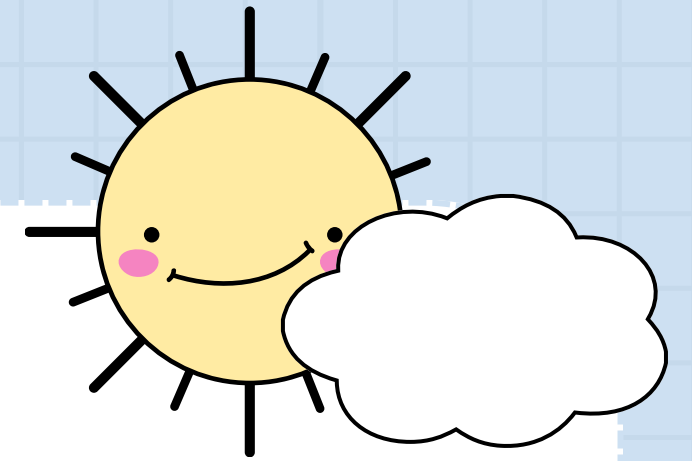
Grace River

Group Home

The story of August



Group Home News



그룹홈으로 돌아온 아이들



엄마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안



꿈을 꾸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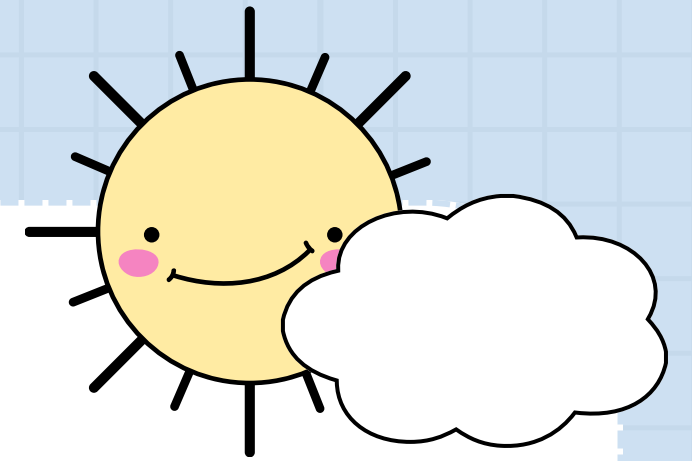
8월1일 방학을 맞이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아이들이 8월21일 다시 그룹홈으로 돌아왔어요.

그룹홈 돌봄선생님은 이제야 사람사는 집같다며, 아이들이 너무 그리웠다고 해요.

돌봄 선생님의 막내딸 이제 만2세가 된 Able이 언니들이 왔다고 엉덩이춤을 주고 소리를 지르며 환영하네요.



컴백 to 그룹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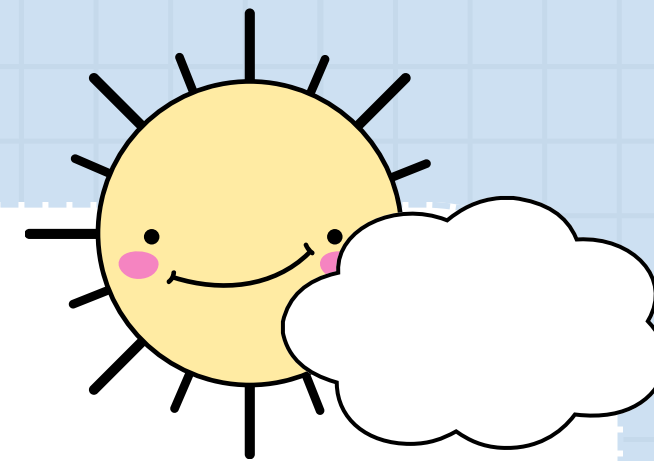


남자그룹홈이 꼭찔어요!

돌봄 선생님의 조카들과 남아있던 이안, 솔로몬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일주일후 카리오코에 와서
그룹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어서
다시 그룹홈으로 돌아온 데이빗.
엄마가 일때문에 몸바사에 가야해서
좀 더 일찍 돌아온 기프트.
사실 남자 그룹홈은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보다
남아있던 아이들이 많아서 늘 온기가 넘치고,
시골벽적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이들이 오니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더 많이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역시 아이들도 모두 함께 여야 힘이 나는가봐요.
남자 그룹홈 완전체가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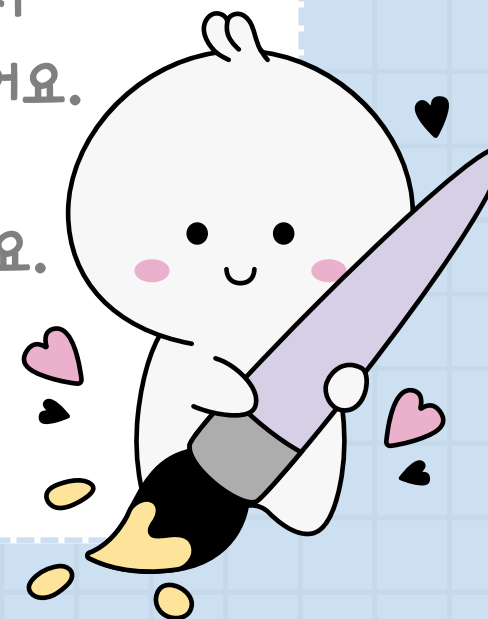


컴백 to 그룹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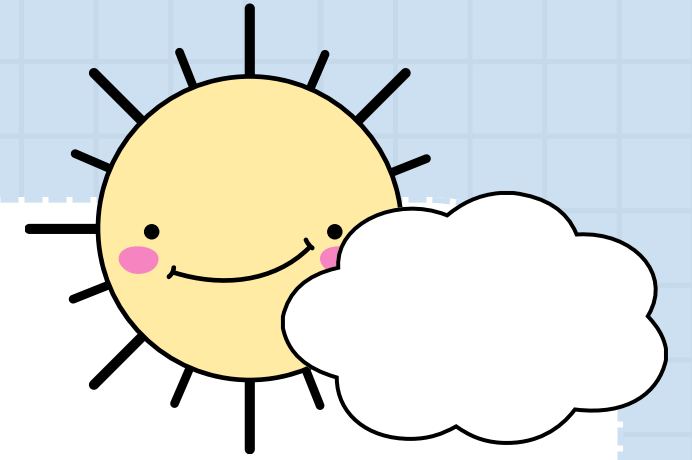


여자 그룹홈에 다시 활기가 생겼어요!

여자 그룹홈에는 지난 5월에 갑작스럽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비나와
지난 1월에 엄마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샤니즈. 그러나 할머니가 샤니즈가
밤마다 돌아다녀서 (사춘기에 돌입) 샤니즈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셔서 그룹홈으로 데려와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둘만 지내다 보니 좀 외롭고 쓸쓸해보였는데,
이렇게 다들 모이니 사비나가 반갑게 먼저 가서
돌아온 친구들을 한명 한명 안아주며 웰컴해주었어요.
원래 굉장히 무뚝뚝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반가움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네요.
이제는 한 식구나 다름없는 아이들.



이안



주님, 마마이안은 잘 있죠?

마마이안은 정말 편안한 얼굴이네요. 저 사진은 마마이안이 하늘나라가기 바로 전날. 마마들 펠로우쉽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에요.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가 터지고, 알콜중독으로 얼굴이 늘 통통붓고, 흐릿한 눈빛이었는데...카리오코 예만찬에서 일 자리를 얻고, 정말 열심으로 일을 했더랬어요. 술도 끊고, 얼굴도 평안해보였는데...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고 걱정하던 이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엄마의 부고를 전해야한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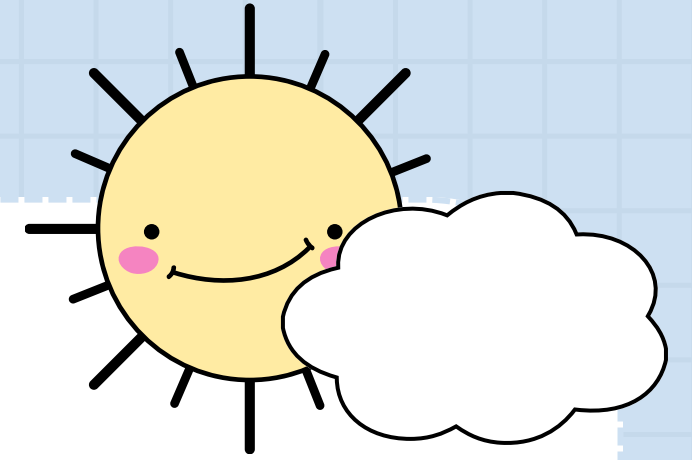
“이안아,,,하나님께서 이안이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해서 안식하라고 하늘나라로 부르신 것 같아...” 이안이가 소리도 못내고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직은 어린 우리 이안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을거예요. 티처루씨가 이안을 안고

“it is well...it is well with my soul...”을 부르자, 눈물을 흘리며 따라부르던 이안의 모습이 생생해요.



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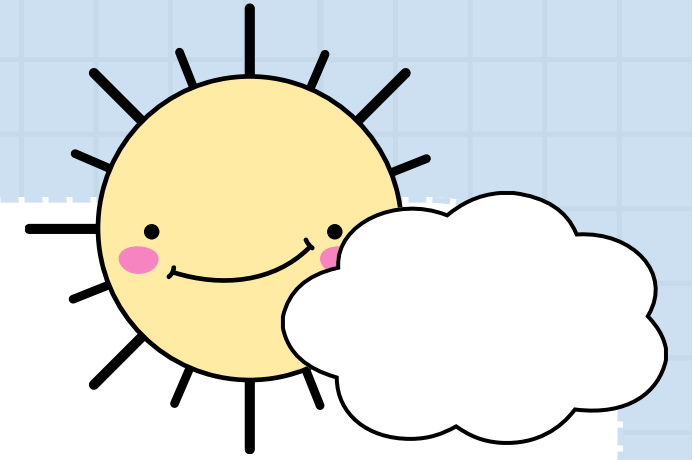


주님, 이안이가 다시 웃어요

방학학교 한글교실에서 김밥을 싸며, 웃고 있는 이안이에요.
아직 마음속에 그 슬픔이 가시지는 않았겠지만,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해요. 동생들이 보고 싶었던
이안이가 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알콜중독자인 아버지가 과연 이안을 다시 돌려보낼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이안을 다시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웃게 해주셨어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이 아이에게 평안을 주고,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이안이가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안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솔로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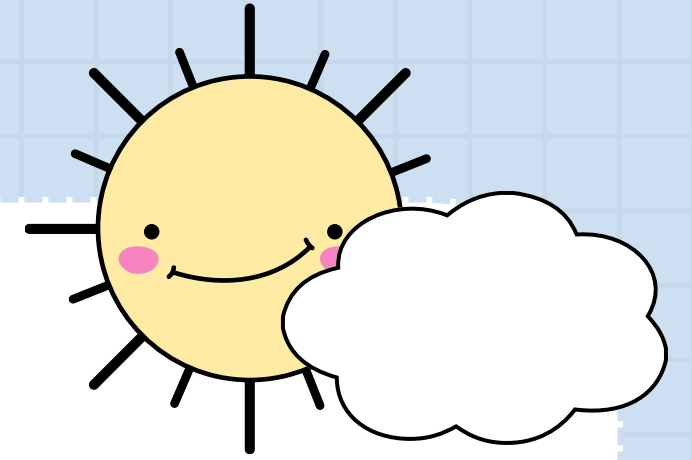
목사님이 되겠다는 솔로몬



지난학기까지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때 홀로 남아있던 솔로몬이 안쓰러워...”너도 집에 가고 싶지?”라고 물었을때,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씩씩하게 말해주어서 그말이 참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였는데, 이번학기는 자신도 집으로 가고 싶다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어요. 맞지요. 그게 당연한것이지요.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했어요. 하지만, 우리 솔로몬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솔로몬도 알고 있지요. 엄마를 찾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보고싶어도 못보는 이안이가 슬플까요. 아니면 엄마가 있어도 솔로몬을 찾지않고, 갈 곳 없는 솔로몬이 슬플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어보는데 솔로몬이 주저없이 “저는 목사님이 될거예요”라고 힘차게 말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주님이 너를 주의종으로 사용하실 것 같구나...’ 마음이 참 따뜻하고 착한 우리 솔로몬. 학교에서도 자신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이랑 공부를 해도 기죽지 않고 행복한 미소로 선생님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솔로몬. 이런 솔로몬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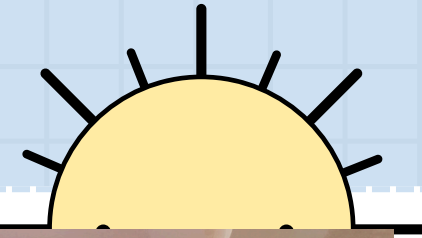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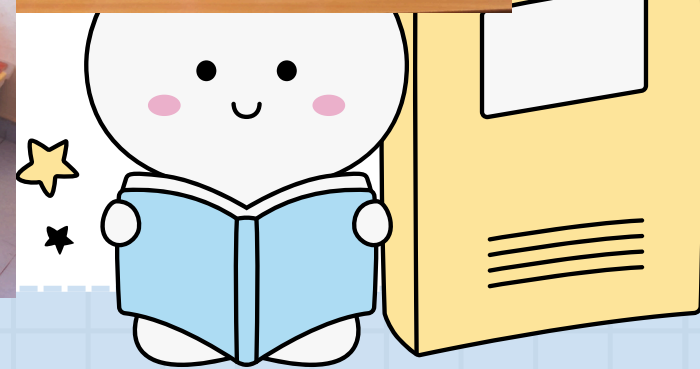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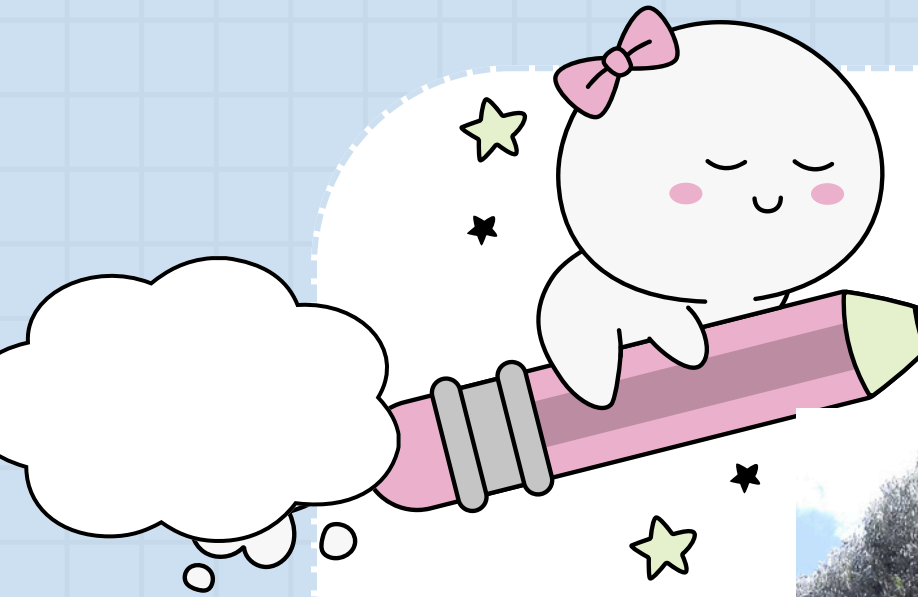
의사가 되겠다는 사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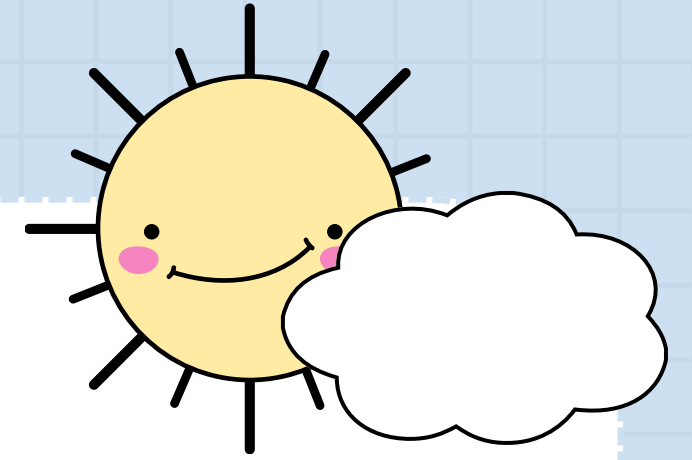
사비나도 5월에 할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그룹홈에 남아있었어요. 이모가 보고싶다고 해서 금요일날 잠깐 예만찬에 가서 이모와 사촌을 보고 왔어요.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짐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하였는데, 다행히 잘 견뎌내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보라고 했는데, 저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그려놓았지 뭐예요. 저 아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거니까요. 사비나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이번 학기에도 사비나는 1등을 했어요. 사비나는 헛된꿈을 꾸지 않아요. 나이에 맞게 학년을 올려주겠다고 했을때도 사비나는 자신을 제대로 알고, 지금 학년에서 잘해볼 거라고 했어요. 욕심을 부릴만도 한데 그러지 않더라구요. 어린 아이인데도 명철하고 똑 부러져요. 분명 의사가 될 거예요. 우리 사비나가 의사가 되어 주님께 영광돌리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너무 너무 행복하네요.

ㅎㅎㅎ 함께 기도해주실거죠? ^^





기도제목



올해에만 그룹홈에서 3명의 아이들이 엄마를 잃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이들에게 부어져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기도해주세요.



아이들이 힘차게, 주저함 없이 꿈을 이야기하었어요.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주님안에서 그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돌봄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브라빈이 그룹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룹홈 아이들이 브라빈을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